불교는 … 불교신문
불자의 의무이자 자부심입니다
구독신청 02)2730-4439

佛教新聞

전통 한방향의 본가
보신탕 www.cwh.co.kr 한방원
☎ 054) 933-6371~2

1960년 1월 5일 창간 주간 토요일
불기 2557년 1월 19일(음력1월 17일) 제1만 4149번째 호(월요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3 제2881호 토

다문화 다종교사회 '증오범죄 방지법' 반드시 필요하다

성공회대 연구교수로 한국을 찾았던 인도인 보니엘 씨는 2000년 "폭탄 테러를 당했다"는 충격 메일을 받았다. 내용 내용 "인도가 "더럽다", "냄새 나는" 동인 비하 발언을 한 것 후에 외쳐 왔던 증오 공포, 혐오 극우 인종, 비부비 등등이 우리 사회를 상징하며 국가정상위원회의 인정을 제기한 사례는 2005년에서 최근까지 2004건이 넘었다. 한편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차별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해반 조사에서 있는 정도다. 2010년에는 학력 성적지향 등 정서장애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해 방하는 차별금지 법률 제정이 추진되었다 이 에서 부결되었다.

다문화 다종교 사회의 명칭과 공존을 보장하는 '증오범죄방지법(가칭)'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 문화의 인정의 배경을 자신 사회에서 모두 서로 배려하고 공존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다. 나라 다른 문화의 인정의 배경을 자신 사회에서 모두 서로 배려하고 공존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